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자유학기제를 발판삼아 학교 수업은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체가 돼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거꾸로 교실’은 학생 중심 수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거꾸로 교실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참신하고 유익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이선희 서울여중 국어교사의 거꾸로 교실

‘나와 우리’ 소개하며 듣기·말하기·쓰기 한번에

이선희 서울여중 국어교사는 1학년 1학기 국어과 수업 14차시를 거꾸로 교실로 진행했다. 거꾸로 교실의 제목은 ‘나와 우리 소개하기’. 듣기·말하기 영역과 쓰기 영역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 학기 시작 전 동료 국어교사들과 협의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듣기·말하기 영역을 학습하는 개인 과제 ‘내가 OO하는 OO 소개하기’와 글쓰기 역량을 키우는 모둠별 과제 ‘우리 동네 소개 신문 만들기’를 동시에 수행했다. 개인 과제와 모둠별 과제는 모두 1학기 수행평가로 성적에 반영했다.

‘나와 우리 소개하기’ 수업은 이 교사가 활동하는 ‘서울미래학교 프론티어단’에서 2014년 공동 고안한 수업 모형. ‘서울미래학교 프론티어단’은 ‘서울미래학교’ 개교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선발한 수업지원단이다. 이 교사는 이 수업 모형을 학교 동료 교사들과 함께 다시 연구·발전시켜 수업에 적용시켰다.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수업개요

교과	—	국어	학기	—	1학년 1학기	차시	—	14차시
단원		1-1. 자기소개하기 1-2. 글쓰기의 계획과 점검 4-2. 효율적인 의사소통						
핵심성취기준		[2911-2]소통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듣기와말하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913-2]인물이나 관심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다. [2931-3]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						
수업 내용		1. ‘내가 OO하는 OO 소개하기’ - 개인 발표과제 2. ‘테마가 있는 우리 동네 소개 신문 만들기’ -모둠 과제 3. 개인 과제 발표하기						



※ 디딤영상이란? 거꾸로교실에서 진행될 수업의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사전 혹은 사후에 제공하는 학습 보조 영상.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1차시] 아이스 브레이킹

1차시 수업은 교사가 제공한 활동지에 제시된 다양한 경험 중 해당 경험이 있는 친구를 찾아 2~3가지 질문을 던지며 인터뷰를 하고 최종적으로 한 명을 전체 학급에게 소개하도록 한다. ‘소개하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연관 활동을 가볍게 수행해 보는 시간으로 이후에 진행될 모둠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한 ‘사전활동’ 성격이다.
 ※ 1차시 수업이 끝나면 2차시 수업 전 ‘소개하기’ 디딤 영상을 미리 보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2차시] ‘내가 OO하는 OOO 소개하기’ 계획 짜기

‘내가 OO하는 OOO 소개하기’라는 주제에 맞춰 학생들이 소개하고 싶은 대상과 주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디딤 영상에서 제시된 ‘소개하기의 절차(△소개할 대상과 예상 독자 정하기 △브레인스토밍·마인드맵을 통해 소개할 내용 정하기 △‘처음-중간-끝’의 구성으로 내용 조직하기 △효과적인 소개 방법 생각하기)’에 부합하는 활동지를 제공해 학생들이 ‘소개하는 말하기’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한다.

QR코드를 스캔해 실제 수업에 활용된 디딤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3차시] ‘소개하는 말하기’ 계획 점검 및 완성

2차시에서 학생 각자가 세운 계획을 모둠원에게 브리핑하도록 한다. 모둠원들은 효과적인 발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론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모둠원끼리 공유하며 ‘소개하는 말하기’ 계획을 세운다. 완성된 계획은 교사에게 제출해 피드백을 받고, 각자 발표를 준비한다. 발표를 위한 원고 작성, PPT 등 보조자료 준비, 말하기 연습은 2~3주간 개인적으로 진행한다.
 ※ 3차시 수업이 끝나면 4차시 수업 전 ‘글쓰기의 과정’ 디딤 영상을 미리 보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4차시] 모둠 과제의 주제 정하기

소개하기와 쓰기를 결합한 활동이다. 모둠별 토의를 통해 ‘방문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 ‘우리 동네 맛집’ 등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주제를 정하도록 한다. 교사는 디딤영상에 소개된 글쓰기의 단계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제공한다.

QR코드를 스캔해 실제 수업에 활용된 디딤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5차시] 신문 제작을 위한 개요 작성하기

신문 만들기를 위해 모둠 내 역할을 분담하고, 역할에 따라 신문 제작을 위한 자료 찾기, 자료 가공하기 등을 진행한다. 모둠별로 태블릿 PC를 제공해 주제에 맞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6~8차시] 모둠 과제 '테마가 있는 우리 동네 소개신문 만들기'

모둠별로 작성한 개요에 따라 2절지에 신문을 제작한다. 기사문을 작성해 신문의 꼭지를 구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모둠 신문을 완성한다. 필요한 경우, 주말을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모둠 과제가 완성되면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기여도를 평가해보는 자기평가와 모둠 내 모둠원들에 대한 상호평가를 진행한다. 자기평가와 모둠 내 상호평가, 교사의 관찰 기록은 모둠 활동 참여도에 대한 개인평가에 반영한다.

모둠 과제 결과물은 2~3주간 학교 내 공간에 전시해 다른 학급 친구들로부터 감상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시가 끝나면 모둠 결과물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9~13차시] 개인 과제 발표하기

모둠 결과물이 전시되는 기간 동안에는 개인 과제인 '내가 OO하는 OOO 소개하기' 발표를 진행한다. 개인 과제에 대한 평가는 교사 외에 학생도 참여한다. 학생들은 친구의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좋고, 나쁜지 평가하도록 한다. 다만, 학생들의 상호평가 결과는 발표자에 대한 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평가한 학생의 듣기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14차시] 모둠 과제 최종 평가

전시를 마친 신문을 거둬들여 학급 내에서 돌려보면서 다른 학급의 친구들이 어떤 감상평을 남겼는지 확인한다. 학급 내에서는 다른 모둠 신문에 대한 상호평가를 진행한다. 모둠 간 상호평가 결과는 모둠과제 결과물 평가점수 산정 시 참고한다.



서울여중 학생들이 지난해 진행한 거꾸로 교실에서 모둠과제인 '우리 동네 신문 만들기'를 위해 직접 신문을 제작하는 모습. 이 과정은 6~8차시 사이에 진행된다. 서울여중 제공

평가는 이렇게 하세요

[개인 과제] 말하기 평가와 듣기 평가를 동시에

발표 활동에 대한 말하기 평가(16점)와 다른 학생의 발표를 듣는 태도를 평가하는 듣기 평가(4점)로 나눠 총 20점 만점으로 실시한다.

말하기 평가는 학생의 발표에 대해 교사가 △계획 및 내용 △조직의 짜임새 △표현 활동 등을 직접 관찰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듣기 평가는 발표자가 아닌 청중에 대한 평가다. 각각의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의 발표에 대해 상호 평가하도록 한 후, 학생들이 각자 제출한 상호 평가지를 토대로 다른 사람의 발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듣고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기준 예시

- 계획 및 내용, 조직의 짜임새: 사전 원고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내용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주제가 잘 전달됨
- 표현 활동: 말소리 크기와 빠르기를 잘 조절하며 말하는 자세와 표정, 몸짓이 자연스럽게 말할 내용의 70% 이상을 암기하여 말함
- 듣기 활동: 말하는 이에게 집중하며 바른 자세로 경청하여 말하기 주제를 명확하게 잘 파악함. 발표자에 대한 상호 평가지를 26칸 이상 작성했으며 중심 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함

[모둠 과제] 무임승차 막으려면 개인 참여도에 대한 평가를

모둠 과제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모둠 과제 결과물에 대한 평가(18점)와 개인 참여도 평가(12점)로 이원화해 실시한다.

모둠 과제 결과물은 내용의 독창성, 완성도 등을 평가하며 교사의 관찰평가 외에 모둠 간 상호평가 결과도 반영한다. 개인 참여도 학생 각자가 모둠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교사의 관찰평가 외에도 학생들의 자기평가와 모둠 내 상호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평가기준 예시

- 모둠활동 참여도: 계획·점검·실행 과정에서 모둠원 전체의 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모두 수행함
- 내용의 독창성: 모둠원 전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동네의 새로운 모습을 독특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연결하여 소개함
- 완성도: 모둠 신문의 주제(테마)와 해당 장소에 대해 자세하게 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와 사진을 여러 신문에 실고, 정해진 기사 형식을 모두 갖추어 모둠 신문을 완성함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거꾸로 교실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거꾸로 교실 운영 노하우를 살펴본다.

“거꾸로 교실로 길러진 적극성, 암기·학습보다 중요해”

Q. 선생님의 거꾸로 교실은 일부 학급에서만 진행됐는데, 다른 학급의 평가는 어떻게 진행됐나?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사전에 동료 교사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학기 시작 전인 2월쯤에 같은 학년 국어수업을 맡은 동료 교사들과 미리 교과과정에 대한 협의를 했고, 활동내용, 평가방법과 기준 등을 동일하게 정했다.

Q. 1차시 수업의 의미는?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한 거꾸로 교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과 학생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수록 수업 효과가 높아진다. 특히 이 수업은 1학년 1학기에 진행되는 수업이므로 학생들 사이에 심리적인 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토론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1차시 수업을 통해 서로 친해지는 과정을 두는 것이다.

Q. 디딤 영상은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디딤 영상은 화면 녹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제작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교사가 노트나 칠판에 필기하는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제공해도 좋다.

수업에서 활용한 2번째 디딤 영상에선 인기 드라마의 장면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를 디딤 영상에 접목하면 학생들의 흥미도가 매우 높아진다.

디딤 영상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수업에 대해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꼭 교과와 연관된 내용만 담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수업 중 수행할 활동에 대해 소개할 수도 있다.

Q. 학생들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처음에는 학교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클래스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했다가 이후 ‘네이버 밴드’ 앱으로 바꿨다. 네이버 밴드의 경우 댓글을 통한 소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들이 댓글을 통해 영상을 보고 난 후 궁금한 점이나 영상과 관련해 해보고 싶은 활동 등을 남기면 이를 수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Q. 교과서 활용은 어떻게?

교과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교과서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은 디딤 영상이나 수업 중 연관 활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다.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통해 핵심 성취기준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교과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Q. 평가 시 유의점은?

상호평가를 하기 전에 자기평가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자기평가 없이 상호평가를 먼저 하게 되면 학생들은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수행 과정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면 자신의 상황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Q. 거꾸로 교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효과는?

학생들은 강의식 수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교실에서는 학생 스스로 생각해 내고,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학생들의 관심사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꾸로 교실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길러지는 적극성, 창의성 등이 핵심이다. 이런 형식의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은 추후 협력 활동, 발표 학습 등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자기 주도적 역량은 단순하게 교과 지식을 조금 더 많이 학습하고 암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Q. 선생님의 수업을 활용해보려는 다른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모둠별 활동을 제외하고 개인 과제를 할 때는 활동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매번 일정 분량 이상 기록하게 했다. 이것은 최종 평가에도 반영됐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해 준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단순히 점수만 받고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고 변화된 점을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교실네트워크(www.futureclassnet.org)에서
더다양한 거꾸로 교실을 만나 보세요.

